

어릴 땐 책을 참 많이 읽었다. 엄마께서 유별나게 책을 아끼신 덕분에 나도 책읽는 습관을 일찍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책 욕심도 대단했다. 엄마는 당장 쌀값이 부족해도 기꺼이 넓은 책장을 차곡차곡 채우셨고 그 책들을 가리지 않고 읽는 것은 내 몫이었다. 그때 밥을 먹는 순간에도 한 페이지를 더 읽고 싶은 아쉬움이 가득했던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어느새 수능시험을 일년도 남기지 않은 고3이 되어버렸고 'EBS 청소년 원탁토론'이라는 방송까지 견뎌야 하는 상황 속에서 독서의 여유를 적잖게 포기해야 했다.

나는 얼마 전 문화관광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청소년 책읽기 운동'에 도서 선정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7개 광역시의 중학생 30여 만 명을 대상으로 100권의 도서를 선정했는데 그때 나는 많은 고민을 했다. 학업을 위한 책을 권장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지식을 익히기 위한 책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하루의 반 이상을 학교에 붙어 앉아서 교과서를 마주해야 하는 청소년은 절대 책에 마음을 두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청소년이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 한다. 자신을 혼란스러워 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기 쉬운 우리. 매순간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 곳을 헤매야 하는 청소년이 마음을 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책이었으면 좋겠다.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책, 현대사회 안에서 메말라 버리기 쉬운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책, 미래를 준비하며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책들을 읽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안식이 함께하는 책이라면 좀더 추천하고 싶다.

《아내의 빈자리》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은 가족과 사별한 사람들의 편지글로 엮여 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 슬퍼하는 남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들이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한껏 묻어났다.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는데 책을 놓지 못했었다. 그동안 가족에게 좀더 잘할 수는 없었는지 후회되고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그 이후론 지친 하루의 마무리를 가족과 함께 평안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한 권 추천한다면 《내 꿈과 행복은 10대에 결정된다》라는 책을 꼽고 싶다. 심리학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읽게 되었는데 청소년이 가져야 할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더불어 나에겐 공부의 이유까지 선물한 책이었다.

김미균
구리 인창고등학교 3학년
EBS '청소년 원탁토론' 진행자

인생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는 꿈과 행복의 씨앗을 심는 시기라는 지은이의 생각은 무엇보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한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어쩌면 어릴 때보다 더 많은 책을 다치듯 읽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뿐 아니라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책을 읽을 시간이 참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잠도 편히 자지 못하는데 책 읽을 여유를 만드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 더욱이 내가 추천한 책들은 진학이나 성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 청소년기에 중요한 것은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신을 성장시키는 일이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독서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되찾기를 바란다. 책이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청소년이 말하는 '나에게 감명을 준 책' 불안의 시기, 마음 둘 쉽터가 되어주기를

